

수협·어민 어항 인식 부족 시설이용관리 적극 계도를

金 福 伊 〈丑山水協 組合長〉

먼저 한국어항협회가 법정법인으로 전환, 새출발을 하게 되는데 대해 축하해 마지 않는다.

사실 어항은 우리 어촌의 핵심적인 수산업 기반시설이다. 왜냐하면 어선의 안전대피는 물론 어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의 신속한 양륙처리 등으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어촌 지역 사회의 정주생활권 기반을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한다면 그동안 우리 수협은 이렇게 소중한 어항의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다소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았다.

어쩌면 많은 어민들이 어항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관리하는 곳이 수협이라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몇년전 한국어항협회가 실시한 어항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어항의 실제 관리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단지 23.7%만이 수협조합장이라고 바르게 응답했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수협과 한국어항협회가 함께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일일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어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어항협회가 이제 법정법인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조직이라든지, 인력 또는 사업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이므로 이런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 분명하겠지만 앞으로 어민 모두가 어항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깨닫고 어항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먼저 홍보와 분위기 조성에 한국어항협회가 앞장서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아직 모든 여건이 여의치않은 까닭도 있겠지만 앞으로 소규모 어항의 개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현행 어항법상 소규모 어항건설사업은 내무부 소관이 되겠으나 한국어항협회가 우리 나라의 모든 어항을 총괄하는 그런 단체로 성장·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지정어항에만 역점을 두지 말고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번쯤 연구과제로 삼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태풍이라든지, 해일 등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이같은 소규모 어항의 영세한 어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항협회가 주관이 되어 소규모 어항의 구축사업, 추진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태풍만 내습했다 하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어항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해마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어항협회가 어차피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그런 대규모 단체로 탈바꿈할 것이 확실한 이상 우리 나라 곳곳에 있는 모든 어항을 재점검, 이에 관한 종합개발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전국적 조직 체계 갖춰야 관리등 협회서 담당할만

辛 英 泰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責任研究員>

그동 안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어항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8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69년 어항법이 제정된지 실로 24년만의 쾌거로서 앞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어항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어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항시설에 민간부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항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고, 어항협회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내용은 모두 중요하나 특히 어항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한 것과 어항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조사기관의 설립 등은 필자도 평소에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터라 이번의 어항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어항은 단순히 어선 등 어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생산된 어획물을 양육, 판매하는 유통가공기지이며, 육지와 어촌을 잇는 해상교통기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어항은 어업생산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시설이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단일 사업으로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어항의 관리 및 연구조사기능은 극히 취약성을 면치 못해 왔던 바, 우선 어항 관리는 그동안 수협에 위임해 왔으나 어민단체인 수협이 이를 원활히 관리하도록 기대한 것은 애당초 무리였고, 최근 해역별로 어항 사무소를 설치했으나 이 역시 어항의 관리에